

# 지리·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대전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 특성\*

박지훈\*\* · 윤정아\*\*\* · 김성태\*\*\*\* · 임수근\*\*\*\*\* · 이재진\*\*\*\*\*

## Characteristics of Location of the Dwelling in the Bronze Age in Daejeon Area from the Geographical and Geomorphological Perspectives\*

Ji Hoon Park\*\* · Jeong A Yoon\*\*\* · Sung Tae Kim\*\*\*\* · Soo Keun Lim\*\*\*\*\* · Ae Jin Lee\*\*\*\*\*

**요약 :** 본 연구목적은 대전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이하 주거지)의 입지특성을 지리·지형학적 관점에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총 133기의 주거지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의 표고, 경사도, 用水河川距離 및 用水河床比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지들은 모두 대전분지 내에 분포하는 저구릉의 평탄지(또는 완경사지)에서 확인되었다. 저구릉은 대부분 복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거지의 평균표고는 71m이고 최적 표고는 50-63m, 67-71m 및 82-90m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균 경사도는 5°이며 최적 경사도는 0-7°에 걸쳐 분포한다. 주거지의 평균 용수하천거리는 1-2차 하천(이하 소급하천)과 3차 이상의 하천(이하 중급하천)이 각각 278m와 918m이다. 또한, 주거지의 평균 용수하상비고는 소급하천과 중급하천이 각각 약 15.8m와 25.3m이다. 이상으로부터 대전지역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주거지 입지를 결정할 때, 대전분지 내에 분포하는 낮은 구릉의 평탄지(또는 완경사지) 중에서 하천으로부터 멀지 않으며, 하천과의 비고차도 크지 않은 장소를 선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대전,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 구릉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of dwelling (hereafter referred as dwelling site) in the Bronze Age from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altitude, gradient, distance from the river of water available for us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altitude and lowest altitude of river bed of water available for use based on change of dwelling site over periods were analyzed targeting a total of 133 dwelling sites discovered in investigation area so fa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dwelling sites were located on flat (or gentle slope) of hills distributed in Daejeon Basin. Low hills were composed of double-mica granite. Average altitude of dwelling sites was 71 m and the optimal altitudes were 50-63 m, 67-71 m and 82-90 m. Average gradient was 6° and the most optimal gradient was 0-7°. Average distance from dwelling sites to the 1<sup>st</sup>-2<sup>nd</sup> river (small scale river) of the river of water available for use was about 278 m and to the 3<sup>rd</sup> river or higher (medium scale river) of the river of water available for use was about 918 m. In addition,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altitude and lowest altitude of river bed of water available for use from dwelling sites to the 1<sup>st</sup>-2<sup>nd</sup> river was about 15.8 m and the difference between

\*본 연구는 2011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지원한 과제(과제명: 함안 성산산성 퇴적환경과 입지연구 II, 연구기간: 2011.03.21-2011.10.30, 과제번호: 20110209)에 의해 수행되었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pollenpjh@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white8547@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imst721@gmail.com)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학부과정(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blueskj@naver.com)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deinaejin@yahoo.co.kr)

the highest altitude and lowest altitude of river bed of water available for use from dwelling sites to the river of the 3<sup>rd</sup> or higher was about 25.3 m. Taken all together, it is shown that the inhabitants in Daejeon area in the Bronze Age preferred the place within comparatively not long distance from the river and the place with not big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altitude and lowest altitude of river in flat (or gentle slope) of the low hills in Daejeon Basin upon selecting the location of dwelling sites.

Key Words : Daejeon, The Bronze Age, Dwelling, Location, Hills

## I. 서론

### 1. 연구목적

최근 박지훈 그룹은 천안·아산 지역 특히 천안천 유역, 장재천 유역, 용두천 유역, 온양천 유역에 있어서 청동기인들이 주거지 입지 선택시 지리 또는 지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당시 주거지 최적 입지환경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들에 의해 적어도 곡교천 유역에 국한하면,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 선택에 있어서 경사도, 표고,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가 취락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경사도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박종철·박지훈, 2011; 박지훈·박종철, 2011; 박지훈·오규진, 2009a, 2009b, 2010; 박지훈·장동호, 2009a, 2009b).

한편,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사 및 고대 유적 또는 주거지의 입지와 그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박지훈 등(2012a)과 박지훈 등(2012b)이 있다. 박지훈 등(2012a)은 대전지역에 있어서 선사 및 고대유적의 입지환경을 밝히기 위하여 지금까지 조사지역에서 보고된 유적들 중에서 신석기시대-원삼국시대 유적들(총 22개소)을 대상으로 지리·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적들은 구릉의 평탄면-준완경사지에 걸쳐 분포하며 대부분의 유적들(21개소, 약 95%)의 기반암은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적들(19개소, 86%)은 비교적 근거리(1-2차의 소급하천과 3차 이상의 중급하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유적들의 평균표고는 71m이고 대부분의 유적들은 표고 약 50-90m에 걸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적들이 입지하고 있는 구릉 경사면의 평균 경사도는 6.7°이며 유적들(15개소, 71%)은 경사도 약 0-15°에 걸쳐 입지하고 있으며, 유적의 경사도가 커질수록 유적들의 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그들은 대전지역에서 생활했던 당시 거주민들이 취락의 입지를 선정할 때, 상대적으로 표고가 높지 않고 지표면의 경사도가 작은 구릉을 선호했으며 이와 더불어 물(하천)을 중요하게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등(2012b)은 대전지역에 있어서 원삼국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환경을 밝히기 위하여 현재까지 조사지역에서 발견된 총 417기의 주거지들을 대상으로 표고, 경사도,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지들은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된 구릉의 평탄지 또는 완경사지에 입지하며 대부분의 주거지들은 표고 70-78m, 82-94m 및 100-102m 그리고 경사도 7° 미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지들로부터 1-2차 하천(소급하천)과 3차하천 이상(중급하천)의 평균 용수하천거리는 각각 114m 및 422-1,022m이며, 또한 주거지들로부터 소급하천과 중급하천의 평균 용수하상비고는 20m와 25m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대전지역에 있어서 원삼국시대 거주민들이 주거지 입지를 선정할 때, 낮은 구릉의 평탄지 또는 완경사지를 선호했으며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하천으로부터 비교적 멀지 않고 하천과의 비교차도 크지 않은 곳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령산맥 이북의 천안과 아산지역에 비해 차령산맥 이남의 대전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의 종합적인 자연환경의 복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이하 주거지)의 입지에 관한 지리 또는 지형학적 연구가 행해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지형학적 관점에서 대전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최적 입지환경을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지역

기근도·이민호(2002)에 의하면, 대전분지의 자연환경은 다음과 같다. 대전분지는 거시적인 스케일로 보면 차

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저산성 산지로 둘러싸인 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다. 대전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는 동·서·남쪽 방향에서 현저하며, 북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 대전분지는 한반도의 중부지방을 NE-SW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보 화강암의 대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와 분지 내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보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분지의 북서부에 분포하는 비교적 낮은 산지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분지의 남동부에 분포하는 비교적 높은 산지는 고생대 옥천계 변성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대전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보 화강암은 중생대 쥐라기에 NE-SW방향으로 관입하면서 수 많은 단열을 형성하였으며, 단열의 배열과 화강암 자체의 풍화특성이 결부되어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산간분지인 대전분지와 대전분지 내의 저구릉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는 대전분지는 3개의 지형면으로 분류되는데, 전체적으로 크

게 ①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 ② 하천기원의 범람원과 하안단구 그리고 ③ 화강암의 심층풍화와 사박으로 형성된 저구릉으로 구분된다(그림 1).

한편, 박지훈(2011)에 의하면, 대전분지의 수계환경은 다음과 같다. 대전분지를 관류하는 가장 큰 하천인 갑천(유로연장: 약 65.6km)은 대둔산 태고사 일대에서 기원하여 대덕구 문평동에서 금강 본류에 합류한다. 그 외, 만인산 계곡에서 기원한 대전천(유로연장: 24.7km), 금산군 인대산에서 기원한 유등천(유로연장: 43km), 계족산과 성재산 사이의 계곡에서 기원한 용호천(유로연장: 약 8.5km)이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박지훈 등(2012b)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조사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의 입지 선정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①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표면의 경사도, ②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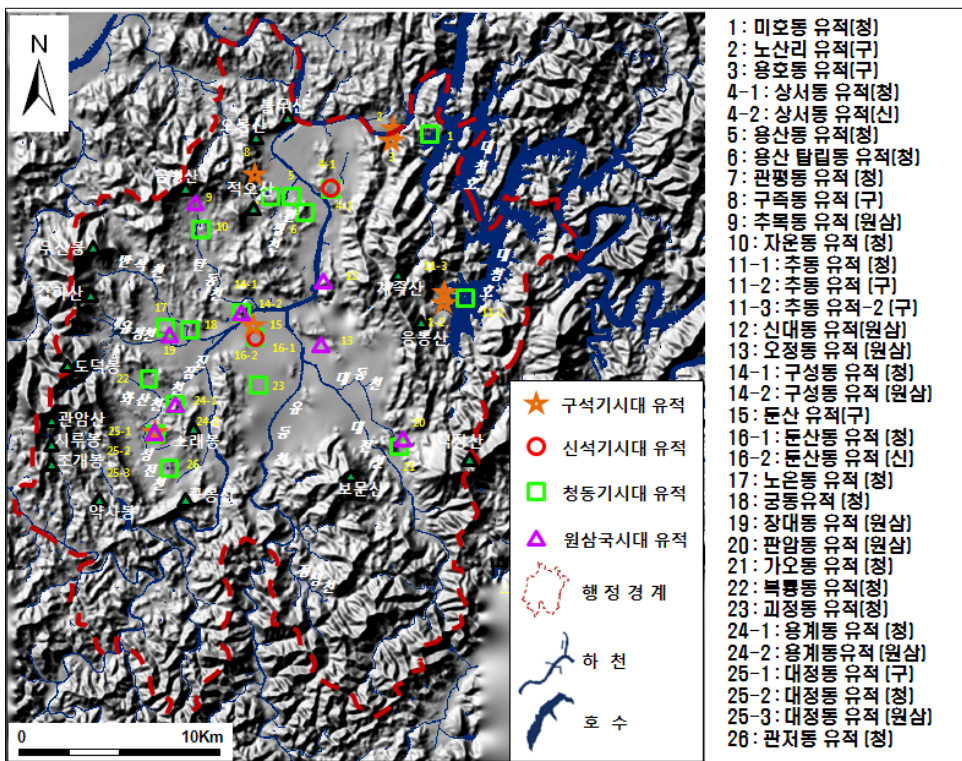


그림 1. 대전분지의 선사 및 고대 유적 위치

\* 구: 구석기시대 유적, 신: 신석기시대 유적, 청: 청동기시대 유적, 원삼: 원삼국시대 유적.

의 지표면 표고, ③ 용수하천거리 및 ④ 용수하상비고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박지훈(2010)에 근거하여 ‘청동기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포함하고 있는 유적을 칭하기로 한다. 그리고 유적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로부터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하천 중에서 당시 거주했던 청동기인들의 생업과 관련하여 용수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 규모의 유량을 가진 하천을 ‘용수하천’으로 하고, 유적 내의 주거지 중 용수하천과의 최단거리를 ‘용수하천거리’, 또 주거지와 용수하천과의 최저비고를 ‘용수하상비고’로 한다. 단, 당시의 용수환경을 보다 잘 복원하기 위하여 1차와 2차 하천과 같은 작은 하천은 소급하천으로, 3차 이상의 하천은 중급하천으로 구별하여 용수하천거리와 용수하상비고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박지훈 등(2012b)과 같이 주거지의 최적입지 환경에 대한 왜곡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동기시대 총 주거지 수(133기)의 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유적의 주거지 수의 비율이 5 이상(주거지 7기 이상)을 차지하는 유적은 ‘주거지 밀집유적’으로 하고, 그 이하를 차지하는 유적은 ‘주거지 비밀집유적’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 II. 분석결과

### 1. 표고 및 경사도

표고분석 결과, 대전지역에서 발견된 주거지들은 표고 44.4-93.9m(평균 표고는 71.1m)에 걸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주거지에서 최고 표고는 93.9m인 용계동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최저 표고는 44.4m인 용산동유적에서 발견되었다(표 2).

경사도분석 결과, 주거지들은 구릉 내에서도 경사도 약 0-23°(평균 경사도 5°)의 경사면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개별 주거지에서 최대 경사도는 23°(급경사지)인 미호동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최소 경사도는 0°(평탄지 I)인 상서동유적과 북룡동유적에서 발견되었다(표 2).

### 2.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

청동기시대 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용

수하천거리는 소급하천의 경우, 11-952m(평균 293m)에 걸쳐 분포하며, 중급하천의 경우, 174-6,125m(평균 1,331m)에 걸쳐 분포한다. 그리고 용수하상비고 분석결과, 소급하천의 경우, 1-33m(평균 12m)에 걸쳐 분포하며, 중급하천의 경우, 8-52m(평균 24m)에 걸쳐 분포한다(표 3, 그림 2, 3).

## III. 고찰

### 1. 청동기시대 유적 및 주거지의 자연환경

지형 및 지질분석 결과, 대전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입지하는 지형은 대부분이 대전분지 내에 분포하는 낮은 구릉의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과 구릉의 경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표면의 지질은 대부분이 복운모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수계분석 결과, 유적의 하천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미호동유적과 추동유적은 금강 본류(8차)에 포함되지만, 그 외 유적들은 모두 갑천 본류(8차)에 속한다. 특히 주거지 밀집유적인 관저동유적, 용산·탑립동유적, 관평동유적, 궁동유적, 구성동유적, 용계동유적, 가오동유적 및 상서동유적은 갑천의 3차-8차 유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시 청동기인들의 용수 및 생업을 고려하여 ‘소급하천’과 ‘중급하천’으로 구분할 때, 대부분의 유적들은 유적 근거리에 소급하천과 중급하천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지훈 등, 2012a).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사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지형, 지질 및 용수환경이 비슷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거지의 입지 인자들 즉 ① 표고, ② 경사도, ③ 용수하천거리 및 ④ 용수하상비고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약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 2. 표고 및 경사도 분석으로 본 주거지 입지의 최적환경

표고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4). 주거지들은 수직적으로 표고 약 44-94m(평균 표고 약 71m)에 걸쳐서

표 1. 대전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는 유적의 자연환경

No.	유적명	주거지		지형	하천		지질
		수 (기)	비율 (%)		소급 하천	중급 하천	
1	大田 加午洞遺蹟 (이하 가오동유적)	8	6	II구역: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1차	3차 (대동천)	
				III구역: 구릉 준완경사지			
				IV구역: 구릉 경사면			
2	大田 關雎洞 遺蹟 (이하 관저동유적)	23	17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1차	6차 (갑천)	복 운 모 화 강 암
3	대전 관평동유적 (이하 관평동유적)	13	10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1차	4차 (동화천)	
4	大田 槐亭高等學校 新築敷地內 遺蹟 (이하 괴정동유적)	1	1	구릉 경사면, 곡저	1차	7차 (유등천)	
5	大田 九城洞 遺蹟 (이하 구성동유적)	10	8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	5차 (탄동천)	
6	弓洞 (이하 궁동유적)	13	10	구릉 경사면	1차	5차 (유성천)	
7	대전노은동유적 (이하 노은동유적)	4	3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곡저	1차	3차 (반사천)	
8	大井洞 遺蹟 (이하 대정동유적)	5	4	1-1구역: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1차	4차 (진잠천)	
				1-2구역: 구릉 경사면, 완사면(일부)			
9	屯山 (이하 둔산동유적)	3	2	구릉 정상부 평탄면	1차	7차 (갑천)	
10	大田 漾湖洞 文化遺蹟 (이하 미호동유적)	1	1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1차	3차 (삼산천)	
11	大田 伏龍洞遺跡 II (이하 복룡동유적)	5	4	구릉 완사면, 경사면	1차	6차 (갑천)	복 운 모 화 강 암
12	大田 上書洞遺蹟 (이하 상서동유적)	8	6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1차	8차 (갑천분류)	
13	대전 용계동유적 (이하 용계동유적)	9	7	구릉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1차	5차 (진잠천)	
14	龍山洞 (이하 용산동유적)	1	1	구릉 완사면(일부), 경사면	1차	8차 (갑천분류)	
15	大田 龍山·塔立洞遺跡 (이하 용산·탑립동유적)	23	17	II구역: 구릉 정상부 완사면, 경사면	1차	8차 (갑천분류)	
				IV구역: 구릉 준완경사지			
				V구역: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VI구역: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16	大田 自雲洞遺蹟 (이하 자운동유적)	5	4	구릉 정상부 평탄면(또는 완사면), 경사면	1차	3차 (탄동천)	
17	大田 秋洞(하추·성쇠)遺跡 (이하 추동 유적)	1	1	구릉 완사면	2차	3차 (주원천)	
소계		133	100				

\* 본 연구에서는 용수 및 생업과 관련하여 주거지에서 가까운 1-2차수 하천을 소급하천 그리고 3차수 이상 하천을 중급하천으로 함.

\*\* 미호동유적과 추동유적은 금강 본류(8차)에 포함되고, 그 외 유적들은 갑천분류(8차)에 속함.

\*\*\* 표 1에 기재된 유적들은 아래 유적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임.

출처 : 공석구 등, 1995; 金珍泰, 2004; 成正鏞·李亨源, 2002; 오종길 등, 2010; 禹在炳 등, 2006; 李康承 등, 2006; 李弘種 등, 2002; 譚祥紀 등, 2002, 2003, 2005, 2008, 2009; 崔秉鉉·柳基正, 1996

표 2.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포함한 유적별 표고 및 경사도

No.	유적명	주거지		표고(m)			경사도(°)		
		수(기)	비율(%)	최고	최저	평균	최고(미지형)	최저(미지형)	평균(미지형)
1	가오동유적	8	6	92.6	86.6	88.3	12.8	0.2	3.0
							준완경사지	평탄지 I	평탄지 II
2	관저동유적	23	17	87.9	80.2	85.4	18.3	0.1	4.1
							경사지	평탄지 I	평탄지 II
3	관평동유적	13	10	71.0	67.0	68.6	9.3	0.5	5.7
							완경사지	평탄지 I	완경사지
4	괴정동유적	1	1	66.8	66.8	66.8	0.9	0.9	0.9
							평탄지 I	평탄지 I	평탄지 I
5	구성동유적	10	8	70.4	68.5	69.6	15.8	0.7	4.4
							경사지	평탄지 I	평탄지 II
6	궁동유적	13	10	65.6	53.9	60.1	10.5	5.9	8.0
							준완경사지	완경사지	완경사지
7	노은동유적	4	3	70.6	59.6	64.6	5.6	0.9	3.2
							완경사지	평탄지 I	평탄지 II
8	대정동유적	5	4	80.8	59.3	70.9	9.6	1.3	4.1
							완경사지	평탄지 II	평탄지 II
9	둔산동유적	3	2	60.6	59.3	60.1	9.6	1.9	5.5
							완경사지	평탄지 II	완경사지
10	미호동유적	1	1	77.7	77.7	77.7	22.9	22.9	22.9
							급경사지	급경사지	급경사지
11	복룡동유적	5	4	89.0	82.5	86.6	15.5	0.0	10.0
							경사지	평탄지 I	준완경사지
12	상서동유적	8	6	56.1	55.0	55.3	1.8	0.0	0.7
							평탄지 II	평탄지 I	평탄지 I
13	용계동유적	9	7	93.9	82.6	86.8	17.5	2.3	8.5
							경사지	평탄지 II	완경사지
14	용산동유적	1	1	44.4	44.4	44.4	8.7	8.7	8.7
							완경사지	완경사지	완경사지
15	용산·탑립동유적	23	17	55.6	48.1	52.7	14.7	0.1	3.6
							준완경사지	평탄지 I	평탄지 II
16	자운동유적	5	4	93.9	87.9	91.7	15.2	0.9	7.8
							경사지	평탄지 I	완경사지
17	추동유적	1	1	73.5	73.5	73.5	0.1	0.1	0.1
							평탄지 I	평탄지 I	평탄지 I
소계		133	100	93.9	44.4	71.1	22.9	0.0	5.0
							급경사지	평탄지 I	평탄지 II

\* 미지형은 경사도에 기초하여 작성함.

\*\* 평탄지 I: 0-1°, 평탄지 II: 1-5°, 완경사지: 5-10°, 준완경사지: 10-15°, 경사지: 15-20°, 급경사지: 20-25°, 급급경사지: 25° 이상.

표 3. 대전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균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

시대	주거지 (기)	하천	평균 용수하천거리 (m)				평균 용수하상비고 (m)			
			최대	최소	비교차	평균	최대	최소	비교차	평균
청동기시대	133	소급하천	963	11	952	293	34	1	33	12
		중급하천	6,125	174	5,951	1,331	52	8	4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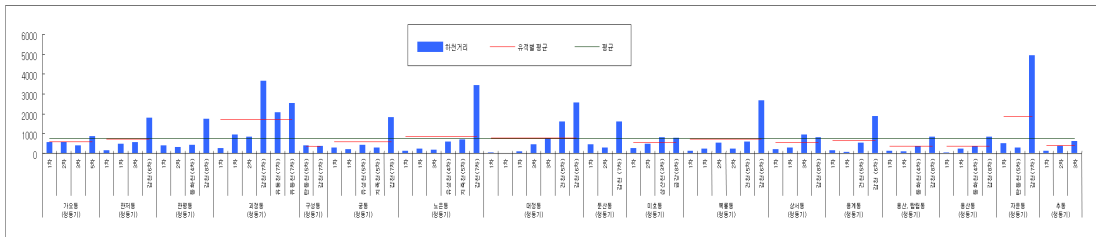


그림 2. 대전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용수하천거리

\* 그래프 Y축의 수치는 용수하천거리로서 단위는 m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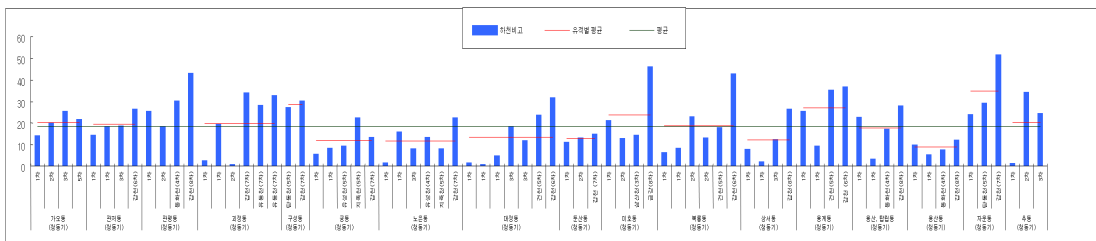


그림 3. 대전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용수하상비고

\* 그래프 Y축의 수치는 용수하상비고로서 단위는 m임.

분포한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들이 상대적으로 밀집하고 있는 표고대를 기준으로 하면 크게 3개의 그룹 즉, A-I그룹, A-II그룹, A-III그룹으로 구분된다.

A-I 그룹은 표고 약 50-63m에 분포하는 주거지군으로서 주로 용산·탑립동유적, 상서동유적, 궁동유적에서 확인된다. A-II 그룹은 표고 약 67-71m에 분포하는 주거지군으로서 관평동유적과 구성동유적에서 발견된다. A-III 그룹은 표고 82-90m에 분포하는 주거지군으로서 대부분은 관저동유적에서 확인되며, 일부 북룡동유적, 가오동유적, 용계동유적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청동기 주거지 입지의 경사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지와 맞닿고 있는 지표의 경사도 측면에서 보면, 주거지들은 약 0.23°(평균경사 5°)에 걸쳐서 폭 넓게 경사면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대부분은 약 18° 미만의 경사면(평탄

자·급경사지)에서 밀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경사도를 기준으로(이금삼·조화룡, 2000) 주거지 수와 밀도를 고려하면, 크게 3개의 그룹 즉, G-I그룹, G-II그룹, G-III그룹으로 구분된다.

G-I 그룹은 주거지가 약 0-7°의 경사면(평탄지·완경사지)에 입지하는 주거지 그룹으로서 대전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분포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관저동유적, 용산·탑립동유적, 상서동유적, 구성동유적의 주거지가 포함되고 일부 대정동유적의 주거지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G-II 그룹은 주거지가 약 7-11°의 경사면(대부분 완경사지, 일부 준완경사지)에 입지하는 주거지 그룹으로서 대전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분포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궁동유적의 주거지가 대부분이고 구성동유적과 관평동유적의 주거지도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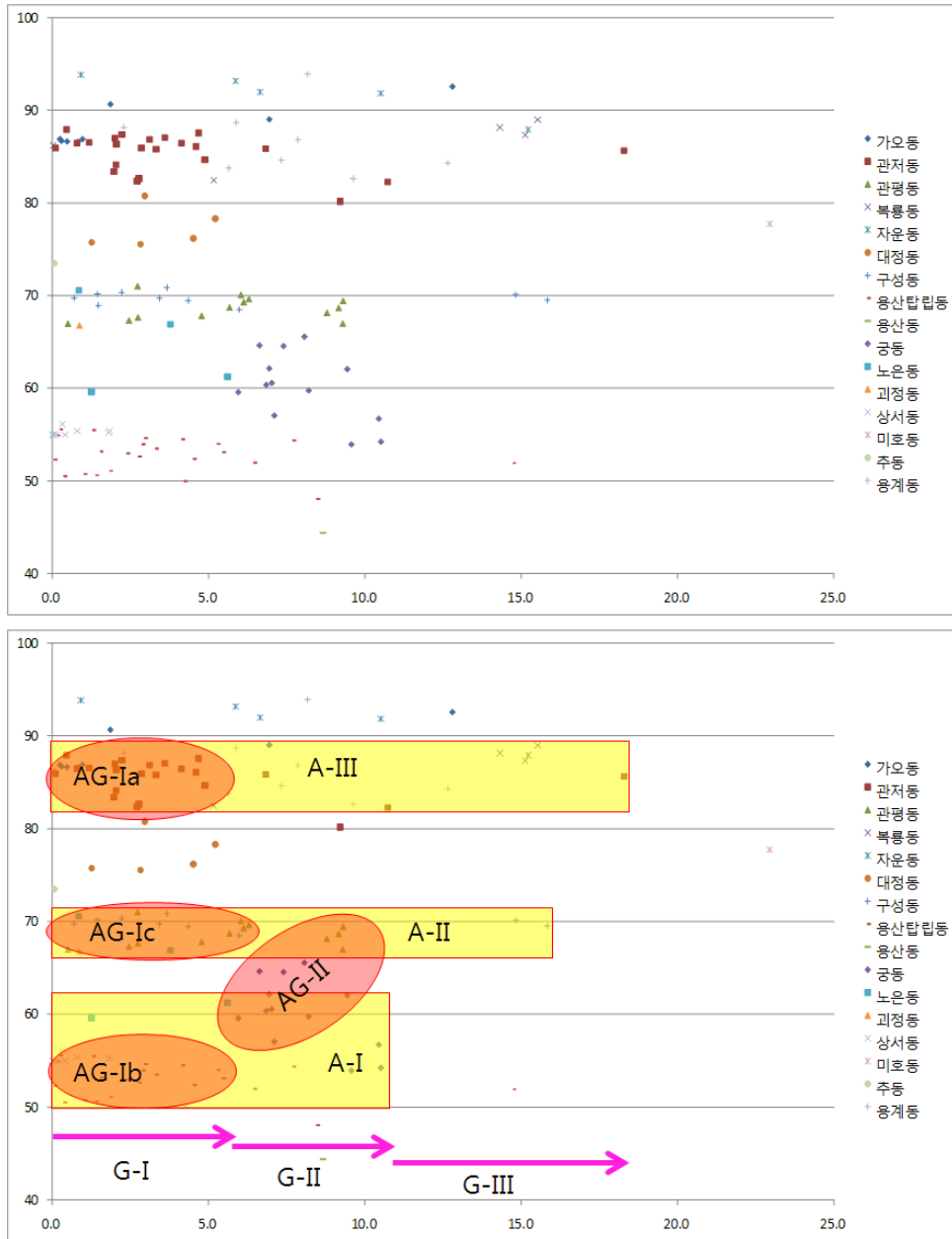


그림 4. 대전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별 입지 지표면의 표고와 경사도

\* X축은 경사도(°), Y축은 표고(m)에 해당됨.

포함된다.

G-III 그룹은 주거지가 약 11-18°의 경사면(준완경사지-급경사지)에 입지하는 주거지그룹으로서 대전지역에서 3번째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분포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북룡동유적의 주거지의 대부분이 그리고 구성동

유적의 주거지 일부가 포함된다.

그런데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경사도분석과 표고분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수가 많고 주거밀도가 높은 구역은 AG-I과 AG-II 그룹으로 구분된다. AG-I 그룹은 다시 AG-Ia, AG-Ib, AG-Ic



그룹으로 세분된다.

AG-Ia 그룹은 약 7° 미만(평탄지-완경사지) 경사도로써 약 82-90m 표고에 밀집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그룹으로서 관저동유적의 주거지들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AG-Ib 그룹은 약 7° 미만 경사도로써 약 50-63m 표고에 밀집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그룹으로서 용산·탑립동유적과 자운동유적의 주거지들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그리고 AG-Ic 그룹은 약 7° 미만 경사도로써 약 67-71m 표고에 밀집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그룹으로서 구성동유적과 관평동유적의 주거지들이 AG-Ia 그룹에 포함된다.

AG-II 그룹은 약 7-11°(대부분 완경사지, 일부 준완경사지)로서 약 59-70m에 주거지가 밀집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그룹으로 이 그룹에는 궁동유적과 관평동유적이 포함된다.

이상으로부터 경사도분석과 표고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최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 유형은 경사도 7° 미만(평탄지, 완경사지)으로 수렴되며 표고대를 달리하는 즉, 약 82-90m, 약 50-63m, 약 67-71m에 입지하고 있는 주거지 그룹으로서 모두 AG-I 그룹에 해당되며, 관저동유적, 용산·탑립동유적, 자운동유적, 구성동유적, 관평동유적이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

음으로 준최적의 주거지 입지 유형은 약 7-11°(대부분 완경사지, 일부 준완경사지)로서 약 59-70m에 주거지가 밀집된 AG-II 그룹으로서 궁동유적과 관평동유적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 분석으로 본 주거지 입지의 최적환경

당시 조사지역에 거주했던 청동기인들이 취락입지 선정시 용수확보를 위하여 선택했을 최적의 용수환경(용수하천거리와 용수하상비고 환경)을 밝히기 위해 주거지 밀집유적과 주거지 비밀집유적으로 구분하여 주거지의 용수하천거리와 용수하상비고를 상호 비교하였다(표 4, 5).

먼저, 주거지 밀집유적을 대상으로 용수하천거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지의 최적 용수하천거리는 소급하천의 경우, 93-569m(평균 278m)에 걸쳐 분포하며, 중급하천의 경우, 367-1,208m(평균 918m)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주거지 비밀집유적을 대상으로 용수하천거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지의 최적 용수하천거리 입지 환경은 소급하천의 경우, 45-683m

표 4. 청동기시대 주거지 밀집유적의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

No.	유적명	하천환경	용수하천거리 (m)	용수하상비고 (m)
1	관저동유적	소급하천	303	16
		중급하천	1,190	23
2	용산·탑립동유적	소급하천	93	13
		중급하천	594	23
3	관평동유적	소급하천	340	22
		중급하천	1,080	37
4	궁동유적	소급하천	220	7
		중급하천	842	15
5	구성동유적	중급하천	367	29
		소급하천	102	17
6	용계동유적	중급하천	1,208	36
		소급하천	569	17
7	가오동유적	중급하천	624	24
		소급하천	232	5
8	상서동유적	중급하천	888	19
		평균 소급하천	278	15.8
소계		평균 중급하천	918	25.3

표 5. 청동기시대 주거지 비밀집유적의 용수하상비고 및 용수하상비고

No.	유적명	하천환경	용수하천거리 (m)	용수하상비고 (m)
1	괴정동유적	소급하천	683	7
		중급하천	2758	32
2	노은동유적	소급하천	153	9
		중급하천	1223	13
3	대정동유적	소급하천	45	3
		중급하천	1342	22
4	둔산동유적	소급하천	350	12
		중급하천	1613	15
5	미호동유적	소급하천	353	17
		중급하천	815	30
6	복룡동유적	소급하천	269	13
		중급하천	1641	31
7	용산동유적	소급하천	133	8
		중급하천	591	10
8	자운동유적	소급하천	478	24
		중급하천	2605	41
9	추동유적	소급하천	253	18
		중급하천	634	24
소계		평균 소급하천	302	12.3
		평균 중급하천	1469	24.2

(평균 302m)에 걸쳐 분포하며, 중급하천의 경우, 634-2,758m(평균 1,469m)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거지 밀집유적과 주거지 비밀집유적 내의 용수하천거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밀집유적과 비밀집유적의 용수하천거리 환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급하천에서는 각각 평균 278m와 302m로서 약 24m의 약간의 거리 차이가 나지만, 중급하천에서는 각각 평균 918m와 1,469m로서 약 551m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청동기시대에 주거지 입지 선택시 주거지 밀집유적이 주거지 비밀집유적에 비해 용수하천거리가 짧으며 특히 중급하천의 용수하천거리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용수하천거리가 짧은 곳이 당시 청동기시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거지 밀집유적을 대상으로 용수하상비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지의 최적 용수하상비고 입지 환경은 소급하천의 경우, 5-22m(평균 15.8m)에 걸쳐 분포

하며, 중급하천의 경우, 15-37m(평균 25.3m)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주거지 비밀집유적을 대상으로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지의 최적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 입지 환경은 소급하천의 경우, 3-24m(평균 12.3m)에 걸쳐 분포하며, 중급하천의 경우, 10-41m(평균 24.2m)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거지 밀집유적과 비밀집유적 내의 용수하상비고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밀집유적과 비밀집유적의 용수하천거리 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2차의 소급하천에서는 각각 평균 15.8m와 12.3m로서 약 3.5m이며, 3차 이상의 중급하천에서는 각각 평균 25.3m와 24.2m로서 약 1.1m의 비교 차가 있다.

이것은 주거지 입지 선택시 용수하상비고는 적어도 대전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청동기시대에 대전지역의 거주민들은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 주거지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용수하상비고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지 입지 선정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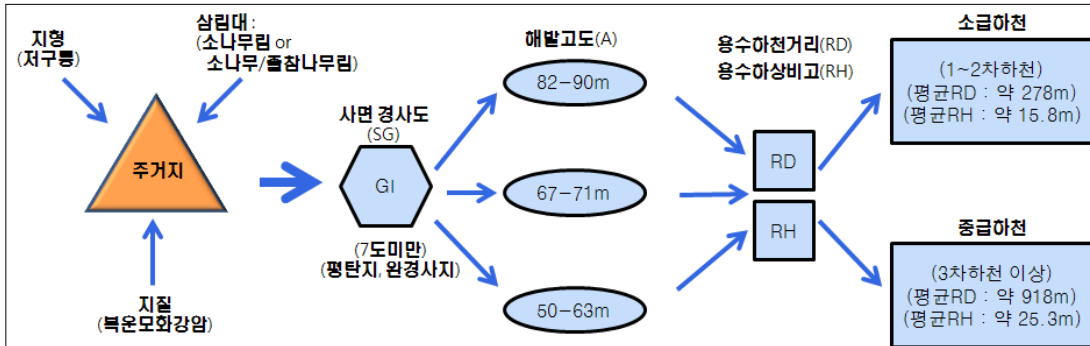


그림 5. 대전지역에 있어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의 최적 입지 유형 모식도

\* 대전지역의 청동기시대 삼림대는 박지훈·이상현(2008)에 근거함

요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지훈 외(2012b)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주거지의 최적 입지환경을 복원하는데 왜곡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주거지 밀집유적을 중심으로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를 논의하면, 청동기시대 최적의 용수환경은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최적의 용수하천거리는 소급하천과 중급하천에서 각각 278m, 918m이고, 용수하상비고는 소급하천과 중급하천에서 각각 15.8m, 25.3m이다(그림 5).

#### IV. 결론

대전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이하 주거지) 입지의 최적환경을 밝히기 위하여 현재까지 조사지역에서 발견되었던 '17개소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총 133기의 주거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박지훈·오규진(2009a)에 기초하여 과거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4개의 인자-경사도, 표고, 용수하천거리 및 용수하상비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주거지들은 대부분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된 낮은 구릉의 평탄지(또는 완경사지)에 입지한다.
- (2) 주거지는 표고 약 44-94m에 걸쳐 입지하고 있으며 평균표고는 71m이다. 그리고 주거지는 경사도 약 0-23°에 걸쳐 입지하고 있으며 평균 경사도는 5°이다.
- (3) 대전지역의 청동기인들은 주거지의 입지 선정시 주거지의 최적 지표면 경사도는 구릉의 평탄지와 완경

사지에 해당되는 경사도 0-7°로 수렴되며 주거지의 최적 표고대는 50-63m, 67-71m 및 82-90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거지의 준최적 경사도는 대부분 구릉의 완경사지와 일부 준완경사지에 해당되는 경사도 7-11°로 수렴되며 최적표고는 59-70m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그들은 생업을 위하여 주거지 밀집유적에 있어서 주거지의 용수하천거리는 1-2차의 소급하천에서 평균 278m, 3차 이상의 중급하천에서 평균 918m로서 주거지로부터 비교적 멀지 않는 곳에 용수를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최우선시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입지 선택시 주거지 밀집유적이 주거지 비밀집유적에 비해 용수하천거리가 짧으며 특히 중급하천의 용수하천거리가 주거지 입지 선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 (5) 주거지 밀집유적에 있어서 주거지의 용수하상비고는 소급하천에서 평균 15.8m, 중급하천에서 평균 25.3m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지역의 청동기인들은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 주거지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용수하상비고가 비교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지 입지 선정시 용수하상비고를 주요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많은 조언과 고교학 자료를 제공해주신 금강문화유산연구원의 류기정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문헌

- 공석구 · 조남순 · 성원식, 1995, 「屯山」, 忠南大學校博物館.
- 기근도 · 이민호, 2002, “지형을 중심으로 한 대전 지역의 이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229-246.
- 김환일 · 육심영, 2002, 「龍山洞」, 忠南大學校博物館·大田廣域市.
- 金珍泰, 2004, 「大田 自雲洞·秋木洞遺蹟」, (財)忠清文化財研究院.
- 柳炯均·崔景溶·李尙復, 2005, 「大田 槐亭高等學校 新築敷地內 遺蹟發掘調查報告書」, 中央文化財研究院·大田廣域市教育廳.
- 박종철·박지훈, 2011, “GIS분석과 사면 미지형별 경사도를 이용한 충남 아산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 지형환경,” 한국지형학회지, 18(2), 65-80.
- 박지훈, 2010, 「곡교천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환경 복원」, 가경고학연구소.
- 박지훈, 2011, 「금강유역(대전시)의 옛 유적입지와 환경변화」,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 박지훈·박종철, 2011, “GIS분석을 이용한 천안 백석동유적그룹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 지형환경-구릉사면의 미지형별 경사도에 주목하여-,” 한국지형학회지, 18(1), 85-100.
- 박지훈·오규진, 2009a, “지리적 관점으로 본 충남 천안천유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유형과 입지요인,” 한국지형학회지, 16(1), 67-88.
- 박지훈·오규진, 2009b, “지리적 관점으로 본 아산 용두천유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최적 입지환경,” 한국사지리학회지, 19(2), 69-82.
- 박지훈·오규진, 2010, “천안 백석동유적그룹 청동기인들의 지형인식과 주거지 입지선택-구릉사면의 미지형과 청동기시대 주거지와와의 대응관계에 주목하여-,” 한국사지리학회지, 20(4), 207-223.
- 박지훈·이상현, 2008, “화분분석으로 본 충남지역의 후빙기 환경 연구-기후변화 및 인간활동에 동반한 식생변천에 주목하여-,” 고생물학회지, 24(1), 55-75.
- 박지훈·장동호, 2009a, “충남 아산 근교 구릉지 소유역에 있어서 사면 미지형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분포와의 대응관계,” 한국지형학회지, 16(2), 43-61.
- 박지훈·장동호, 2009b, “아산 용화동유적그룹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환경과 고대인들의 지형인식에 관한 연구-특히 사면 미지형 분류를 이용하여-,” 한국지형학회지, 19(4), 171-187.
- 박지훈·장동호·김찬수, 2012a, “대전지역에 있어서 선사·고대 유적의 입지환경,” 한국지형학회지, 19(1), 41-56.
- 박지훈·장동호·김찬수, 2012b, “대전지역에 있어서 원삼국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환경,” 한국사지리학회지, 22(1), 119-131.
- 손보기·박영철·장호수·이강승·박순발, 1995, 「屯山」, 忠南大學校博物館.
- 오종길·정상훈·최병주·정용준·정선애, 2010, 「大田 關雎洞 遺蹟」, 백제문화재연구원.
- 禹在炳·梁慧珍·姜胎正·李芝英·韓辰淑, 2006, 「大田 上書洞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大田廣域市.
- 이강승·우재병·이형원·양혜진·강태정, 2006, 「弓洞」, 忠南大學校博物館.
- 李弘銀·崔銀澤·朴性姬, 2002, 「大井洞 遺蹟-大田 綜合流通團地 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大田廣域市 都市開發公社.
- 정종태·강철규, 2009, 「大田 漢湖洞 文化遺蹟 1·2次 報告書」,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백제문화재연구원.
- 조상기·류형균·이현정, 2005, 「大清湖 棧岸地域內 大田 秋洞(하추·성포)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大田廣域市.
- 趙詳紀·柳炯均·崔景溶·李尙復, 2009, 「대전 용계동(龍溪洞)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 趙詳紀·申年植·金煥逸·玄大煥, 2008, 「大德테크너밸리 3 段階 造成事業敷地內 大田 龍山·塔立洞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
- 趙詳紀·李文炯·李至均·姜志遠, 2008, 「大田 綜合流通團地 進入道路敷地內 大田 伏龍洞遺蹟Ⅱ」, 中央文化財研究院·大田廣域市建設管理本部.
- 趙詳紀·李載敦·申年植·玄大煥·申彩泓·朴珠嬉·薛知恩·金知賢, 2002,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내)대전 관평동유적」, 中央文化財研究院·대덕테크노밸리.
- 趙詳紀·趙載京·申年植·都文善, 2003, 「加午宅地開發事業地區內 大田 加午洞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 崔秉鉉·柳基正, 1996, 「大田 九城洞 遺蹟」, 漢南大學校博物館·氣象廳.
- 韓昌均·金根完·柳基正·許世蓮·田溢溶·徐大源·具滋振, 2003, 「대전노은동유적-대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교신 : 윤정아,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  
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white8547@  
kongju.ac.kr)

투 고 일: 2012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투고확정일: 2012년 6월 18일

Correspondence : Jeong A Yoon, 314-701, 182 Shinkwan-  
dong, Gongju, Chungnam,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white8547@kongju.ac.kr)